

첫번째 음악



첫번째 음악은 약 1분으로,

같은 반 여자아이의 수화공연을 보고 수화의 매력에 빠지는 남자아이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곡입니다.

주변의 소리가 점점 안들리고 남자 아이만이 음악이 들리는 장면으로 표현이 됐으면 하는 장면입니다.

음악감독님과 음악작곡뿐 아니라 연출적인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번째 음악

두번째 음악은 약 30초입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쪽지를 주기 위해 여자 아이를 따라다니는 장면으로 아이의 순수함과 엉뚱함 귀여움이 보이는 노래를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



세번째 음악

세번째 음악은 첫번째 음악과 동일한 음악입니다.

첫번째 음악에서 길이가 약 30초정도 더 길니다.

이 부분은 몽타주 시퀀스로 남자아이가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해 여자아이가 키우는 꽃에 물을 주고 여자아이의 책상에 앉아 그 아이의 시선으로 교실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여자아이에게 고백을 하기위한 준비과정으로 아이의 순수함이 음악으로 표현됐으면 하는 장면입니다.



네번째 음악



네번째 음악은 약30초 정도로,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아이에게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레퍼런스 음악은 극을 고조시키는 음악으로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인만큼 무겁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가볍게 솔로 피아노로 친 노래입니다.

다섯 번째 음악



다섯 번째 음악은 엔딩타이틀이 뜨고 엔딩크레딧으로 이어지는 장면으로 엔딩타이틀부터 1분30초 정도를 생각 하고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수어로 고백을 하고 두 사람이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사운드들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관객들은 그들이 하는 언어를 알아들을 순 없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세계에 함께하며 둘의 제스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딩타이틀 '봄의 언어'가 나오고 엔딩크레딧으로 이어집니다.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영화에서 한번도 안 나오는데, 엔딩음악에 여자아이의 허밍이 있는 노래를 레퍼런스로 삼아 약간의 판타지 적인 연출도 생각 하고있습니다.

노래 중간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두 사람이 허밍이 함께 들리는데, 두 주인공에게 둘만의 언어로 노래 하는걸 선사 하고싶습니다.